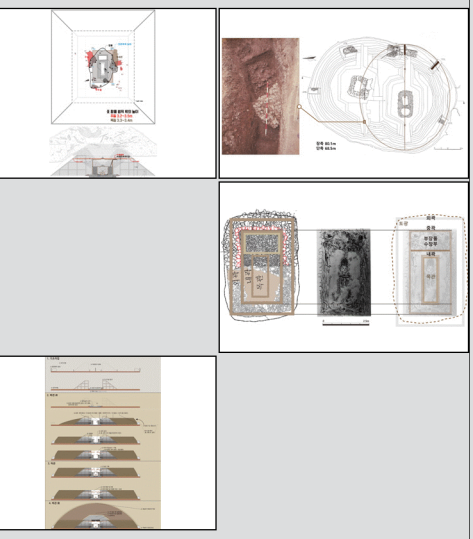
http://doi.org/10.20292/jcich.2024.44.35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 재검토

Re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 of above-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정 익 재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원

Ⅰ. 머리말

Ⅱ.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 연구와 쟁점

Ⅲ. 구조 재검토

Ⅳ. 축조공정 복원

Ⅴ.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의 정형성

Ⅵ.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4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를 살피고 그 축조공정을 복원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보고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오류로 판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발굴보고서에서는 천마총을 1곽 1관, 황남대총 북분을 2곽 1관의 구조로 보고하여, 황남대총 남분의 3곽 1관 구조가 황남대총 북분에서 중곽이 생략되고, 천마총에서 목곽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었다. 한편, 그 후의 연구에서는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에서 중곽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필자도 그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구조의 이해와 그 근거의 미약함을 지적하고 천마총 주칠 냇돌의 출토범위와 함몰 정황 등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였다.

정리하자면 첫째,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은 중곽이 있는 3곽 1관의 구조이고 둘째, 천마총의 목곽 높이는 단칠 냇돌의 출토 정황을 볼 때 2.1m에서 3.4m로 수정할 수 있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복원한 축조공정에서는 중곽이 외곽보다 먼저 만들어지고 외곽은 적석목곽묘의 지상화에 따른 적석부의 축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이들의 비교를 통해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정형성을 고찰하였는데 특히 중곽의 평면 크기가 높은 유사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러한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평면구조가 신라 전기 이른 시기의 대형 지하식 적석목곽묘인 쪽샘 L17호와의 유사함을 확인하여 그 기원에 관한 단서를 엿볼 수 있었다.

주제어 : 신라 고분, 지상식 적석목곽묘, 황남대총, 천마총, 구조

Ⅰ. 머리말

무덤 연구는 당시 사회를 복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이다. 그중 신라 고분은 일제강점기부터 발굴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자료를 축적해오고 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 있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연구가 진전하며 당시 사회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경주 대릉원 일원의 대형 무덤은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으며, 그중에서도 금관총이나 천마총, 황남대총과 같이 신라 고분 연구사에서 굵직한 이정표로 평가받는 지상식 적석목곽묘[1]는 출토된 유물과 함께 무덤의 입지나 구조, 편년 등, 적지 않은 고고학 자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대형의 지상식 적석목곽묘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도 쉽지 않아 향후 자료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최근 금관총, 서봉총, 쪽샘 44호분 등의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지만, 재조사나 파괴분의 수습발굴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확보된 자료와 함께 앞선 조사성과의 재검토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좋은 기회로 천마총과 황남대총 북분의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성과물로 낼 기회가 있어 여기에는 보고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2021), 이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정리하여 이 글에 담고자 한다.

Ⅱ.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 연구와 쟁점

적석목곽묘는 구조와 편년, 범주, 계통, 위계, 기원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은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려우며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 연구 또한 다른 분야와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이러한 적석목곽묘는 일제강점기 발굴로 신라의 특징적인 묘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여[2] 1970년대 천마총과 황남대총 남 · 북분 발굴로 그 구조가 자세하게 밝혀졌다.

---

1) 이는 이희준(1996)의 지상적석식 적석목곽묘, 김용성(1998)의 적석봉토분 지상식 적석목곽묘, 최병현(2021)의 무묘광 지상주체식 적석목곽분에 해당한다.

2) 신라 적석목곽묘의 특징적인 요소인 적석의 존재를 인식한 것은 1906년 이루어진 남총 발굴이고 그 전모가 드러난 것은 1917년 조사된 보문리 고분 발굴로 여겨진다(최병현 2017: 9).

이는 북방기원설(김원룡 1976, 1986; 이은창 1987; 최병현 1992)로 이어졌으나, 시간과 거리의 문제로 끊임없이 비판되었고(강봉원 2004), 울산 중산리유적 발굴로 적석목곽묘의 자체발생설(이성주 1992, 1996; 이희준 1987, 1996)이 대두하면서 범주와 기원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원상(原狀)을 밝히고 축조공정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 공정은 하관(下棺)을 전후로 나뉘고 세부적으로는 구조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여 왔다.

일제강점기 조사를 시작으로 단편적인 연구는 있었으나,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의 발굴에서부터 시작한다. 천마총(文化財管理局 1974: 63)과 황남대총 남 · 북분의 조사 보고서에서 축조공정을 복원하였고(文化財硏究所 1994: 38~39, 1985: 47~48), 이를 최병현(1992: 110)이 정리하여 그 구조와 축조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 이래로 울산 중산리 유적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목곽묘의 묘광과 목곽 사이를 석재로 채운 보강적석의 개념이 제시되었고(이성주 1996: 43, 53), 이는 적석목곽묘로 포함되면서(이희준 1996: 300~303) 그 범주를 확대하였다.

한편 조영현(2002: 83~116)은 봉분 축조에서 구획 성토가 있었음을 밝혔고, 김용성은 하관을 기준으로 축조 단계를 구분하였으며(김용성 2007: 129~130), 부장 유물을 근거로 목곽 뚜껑 상부에 공간이 있다고 보았다(김용성 2007: 132, 2009: 135). 이후 김두철(2009: 73~77)과 심현철(2013: 100~108)은 측벽부 적석과 외곽 사이를 사주적석(四周積石)으로 구분하고, 토광 굴착부터 시작되는 볼록렌즈 모양의 1차 성토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여기에 김대환(2016: 98~99)은 금관총의 재발굴 성과를 토대로 사방적석(四方積石)의 축조공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부적석(蓋部積石)과 목곽 뚜껑 사이를 상부적석(上部積石)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심현철(2018a)은 봉분 설계에 타원 작도법이 이용되었음에 착안하여 그 중심점을 추정한 바 있다.

이처럼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공정에 관한 연구는 그 사례가 추가하며 점차 구체화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연구자의 견해에 견해가 더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며 적지 않은 인식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이는 적석목곽묘의 구조에 관한 1차적 관찰뿐만 아니라 기원과 계통, 범주 등 복잡하고 다양한 관점이 투영되고 이에 더하여 목곽의 함몰로 인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연구의 쟁점을 정리하자면, 그 세부 구조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1. 관 · 곽의 구조

지금까지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관 · 곽 구조는 황남대총 남분의 3중곽 구조(외곽-중곽-내곽)가 북분에서 중곽이 없는 구조(외곽-내곽)로, 다시 천마총에서 높이가 낮아지는 것으로 그 변화를 이해하기도 하였다(최병현 1992: 323~330, 김용성 2007: 136). 그러나 이후 이러한 견해에 대해 중곽이 있을 것으로 보는 연구(최종규 2011; 박형열 2020; 김대환 2021)가 있었다(표1).

[표 1] 지상식 적석목곽묘 매장주체부 구조 복원안 비교

1. 황남대총 남분

연구자	구조	세부			
본 고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보고서(1994)	2곽 2관	외곽	내곽	외관	내관
최병현(2016a)	2곽 2관	외곽	내곽	외관	내관
김용성(2007)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최종규(2011)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박형열(2020)	2곽 1관	가구시설	외곽	내곽	관
김대환(2021)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2. 황남대총 북분

연구자	구조	세부			
본 고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보고서(1985)	1곽 2관	곽	–	외관	내관
최병현(2016a)	1곽 2관	곽	–	외관	내관
김용성(2007)	2곽 1관	곽	–	내곽	내관
최종규(2011)	4곽 1관	4곽	3곽 2곽	1곽	관
박형열(2020)	2곽 1관	가구시설	외곽	내곽	관
김대환(2021)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3. 천마총

연구자	구조	세부			
본 고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관
보고서(1974)	1곽 1관	곽	–	–	관
최병현(2016a)	1곽 1관	곽	–	–	관
김용성(2007)	1곽 1관	곽	–	–	관
최종규(2011)	4곽 2관	4곽	3곽 2곽	1곽	관
박형열(2020)	2곽 1관	가구시설	외곽	내곽	관
김대환(2021)	2곽 1관	외곽	내곽	–	관

4. 금관총

연구자	구조	세부			
본 고	3곽 1관	외곽	중곽	내곽	목관
보고서(1924)	1곽 1관	?	목곽	–	목관
최병현(2016a)	1곽 1관	곽	–	–	관
김용성(2015)	2곽 1관	외곽	내곽	–	목관
	–	–	– –	–	–
박형열(2020)	2곽 1관	가구시설	외곽	내곽	목관
김대환(2021)	2곽 1관	외곽	내곽		목관

최종규(2011: 21~29)는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을 4곽으로 복원하고 양 석단 사이에 2 · 3곽이 놓이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대환(2016: 93)은 이에 대해 2곽은 목관주위 석단(石壇)의 유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목곽아래 석단(石段)을 유지하기 위한 3곽은 무리한 추정으로 보았다. 그는 하나의 중곽을 인정하고 석단(石

壇)의 형태 유지를 그 근거로 본 것이다. 한편, 박형열은 기존의 외곽을 가구시설로, 중곽을 외곽으로 보았고(2020: 58~60) 여기에 관 바깥에 내곽을 포함하여 2중곽으로 목곽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중곽이 있다고 보는 견해로 필자도 이에 공감하지만,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적 추측에 머물고 그 근거의 미약함이 지적되며 재반론(최병현 2021: 335~336)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좀 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관 · 곽 구조에 대한 견해들의 쟁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중곽의 유무, 둘째는 내곽의 유무, 셋째는 외곽은 가구시설인가? 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관 · 곽 구조는 예외 없이 3곽 1관 구조를 갖는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는 후술(後述)하겠다.

2. 목곽 상부 공간

천마총과 황남대총 남 · 북분 보고서에서는 함몰부 출토유물 상당수를 목곽 상부의 유물로 기술(記述)하고 있다. 필자는 아마 이러한 이유로 목곽 상부에 별도의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김용성(2007: 132, 2009: 135)은 황남대총 북분에서 목곽보다 높은 측벽부 적석을 근거로 상부 공간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심현철(2020: 30)은 주칠(朱漆)된 적석의 범위 등을 근거[3]로 상부 공간이 있었고 여기에 순장자가 안치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근거의 미약함이 지적되며 반박되었는데(최병현 2016a: 82), 필자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자세한 검토는 후술하겠다.

3. 사방적석의 구분

천마총과 황남대총 남분 보고서에서는 적석부를 측벽부 적석과 개부적석으로 구분하였고 최병현(2016a: 44)은 측벽부 적석을 사방적석으로 개부적석을 상부적석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김두철(2009: 79)은 측벽부 적석에서 세분하여 외곽과 가구시

3) 구체적인 복원은 별고를 통해 밝힌다고 하여 자세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설 사이를 사주적석으로 보았다. 다시 김대환(2016: 98~99)은 이를 이희준의 사방적석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공정은 측벽부를 먼저 쌓고 목곽을 설치한 다음 사방적석을 충진(充塡)하는 것으로 보았다(김대환 2016: 103)(표 2).

이처럼 측벽부 적석에서 사방(사주)적석을 구분하는 문제는 발굴자료의 부족으로 상반된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조사자료에 근거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2] 지상식 적석목곽묘 적석부 구조 복원안 비교

연구자	적석부 구분			
보고서(1974,1994)	측벽부 적석		개부적석	
최병현(2016a)	사방적석		상부적석	
김두철(2009)	측벽부 적석	사주적석	개부적석	
김대환(2016)	측벽부 적석	사방적석	상부적석	개부적석
본 고	측벽부 적석		(상부적석)	개부적석

이 밖에도 천마총 적석부 높이와 목관의 길이, 서봉총의 목곽 범위 등 다시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학계의 쟁점을 중심으로 첫째,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를 다시 검토하고 둘째, 이를 바탕으로 축조공정을 복원하며 셋째, 학계에서 진행되어온 논의를 정리하여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핵심은 천마총과 황남대총 북분의 목곽 구조를 수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의 정형성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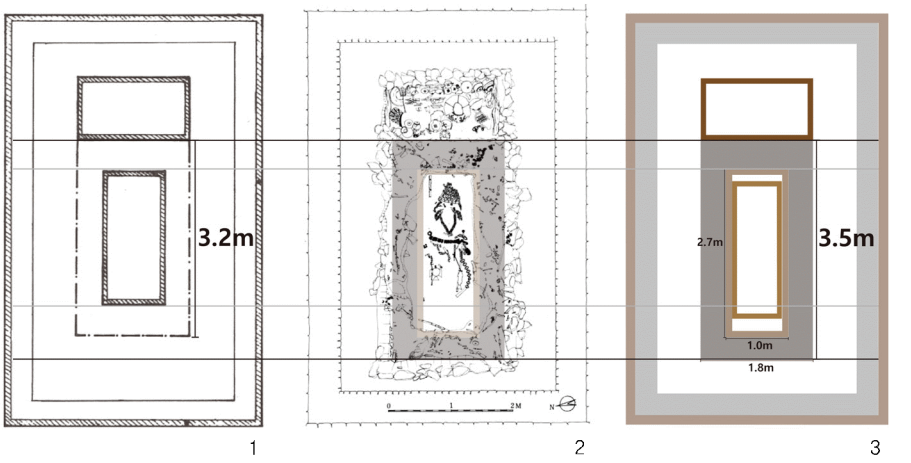
Ⅲ. 구조 재검토

지금까지 발굴된 지상식 적석목곽묘에는 황남대총 남 · 북분과 천마총, 금관총, 서봉총 그리고 얼마 전 발굴이 끝난 쪽샘 44호묘가 있다. 이들은 모두 대형의 무덤으로 그 조사내용이 방대하므로 이글에서 밝히려 하는 고분 구조와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목곽부, 적석부, 봉토부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천마총

1) 매장주체부

첫째, 목관과 목관주위 석단(石壇)의 길이이다. 보고서에서는 그 길이를 3.2m, 목관을 2.15m로 보고하고 이를 반영하여 평면 복원도(문화재관리국 1974: 61)의 서편 공간을 넓게 그렸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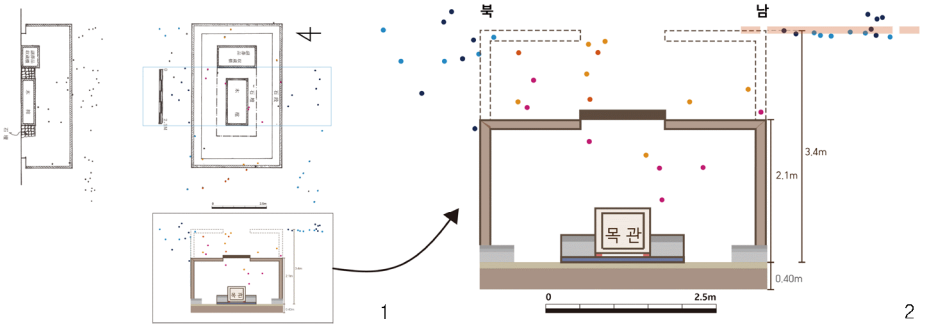
[그림 1] 1. 천마총 복원도(1974: 57), 2. 유물 배치도(1973: 54), 3. 수정 복원도(필자 재작도)

그러나 이는 바르게 보고된 보고서 5장의 내용(문화재관리국 1974: 70)과 약 보고서의 유물배치도(문화재관리국 1973: 54) 그리고 하부판재가 3.5m인 것을 참조하면 3.5m로 수정해야 할듯하다. 또한, 그 안에 목관도 석단의 길이에 따라 더 길었을 듯하다(그림 1-3).

둘째, 목곽의 높이이다. 이는 주칠(朱漆)[4] 냇돌이 함몰된 정황을 통해 기존 보고된 2.1m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그림 2]는 이를 표시한 평면 · 장축 복원도(그림 2-1)와 이를 토대로 한 단축 복원도이다(그림 2-2).

기존 장축 단면도에서 잘 보이지 않던 정황이 단축에서는 잘 드러난다. 아래 [그림 2-2]를 보면, 목곽 남벽 상단의 주칠 냇돌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우측 상단 음영), 그 높이는 대략 3.4m이다. 반면, 북벽 상단의 주칠은 정연하지 않은데 이

4) 보고서에서는 이를 단칠(丹漆)로 적고 있으나,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이 글에서는 주칠(朱漆)로 적고자 한다(김은경 2012: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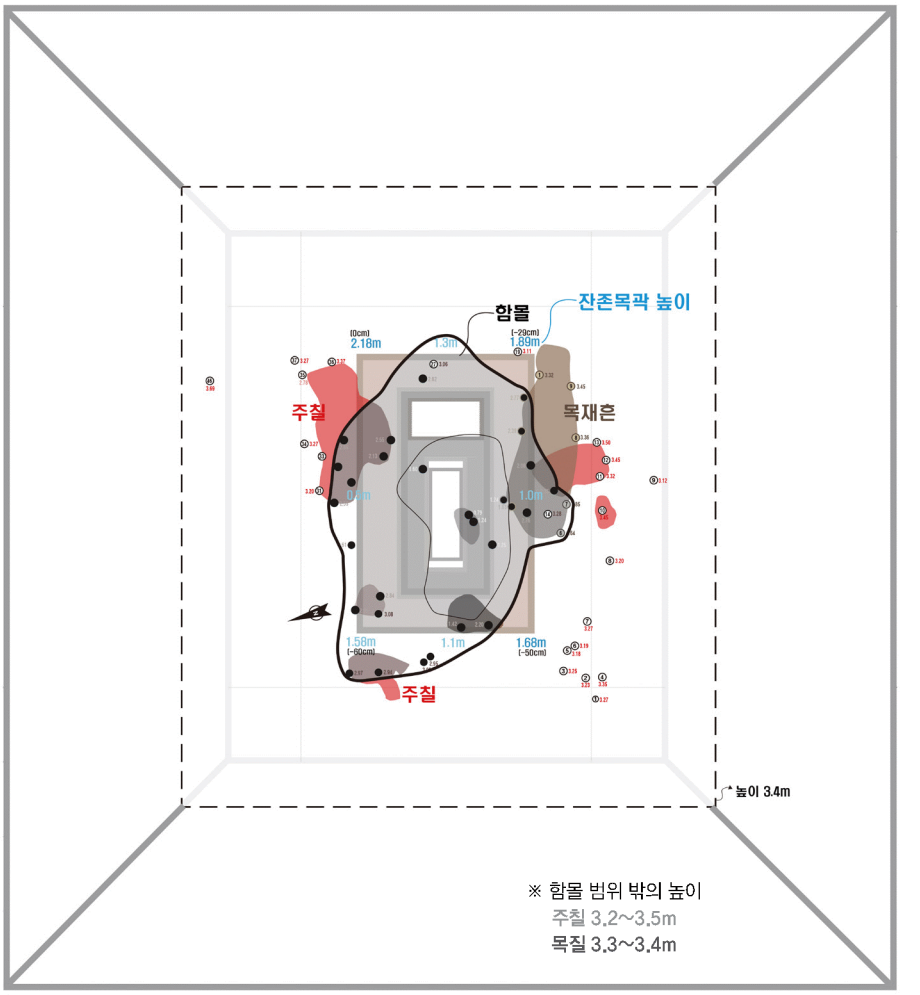
[그림 2] 주칠 냇돌 출토위치도(1. 평면 · 장축, 2. 단축, 문화재관리국 1973: 57 개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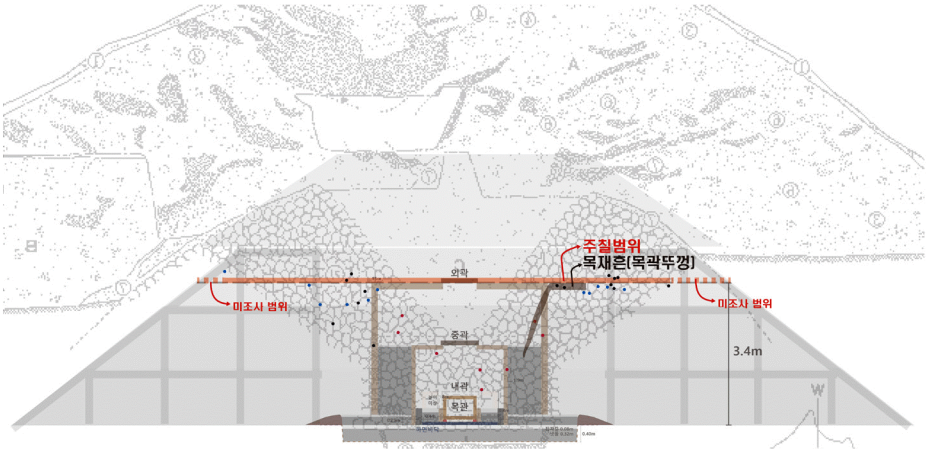
는 함몰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양상은 보고서 기술(문화재관리국 1974: 56)에서도 확인되었고 이에 필자는 좀 더 자세한 함몰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보고서로 제시된 자료와 함께 새롭게 공개된 원자료(국립문화재연구소 2019)에서 주칠과 목재흔을 더하여 평면도로 나타내 보았다(그림 3).

> 적석의 내부 즉, 목곽이 있었던 적석 주위의 측벽은 함몰된 적석 중심부의 냇돌을 제거하면서 그 규모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 또한, 높이도 네 모서리가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동북 모서리의 정상 아래 10m 52㎝를 기준으로 보면 동남 모서리가 29㎝, 남서 모서리가 50㎝, 서북 모서리가 60㎝ 각각 얕게 나타났다. 결국 적석의 동벽이 가장 높게 잘 남아 있었으며 북벽의 서편이 가장 심하게 무너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목곽 내로 함몰된 냇돌을 들어 내는 작업은 정상 아래 12m 66㎝까지 속행되었고 그 지점이 목곽의 상면임을 확인하였다. 적석의 내부 측벽 높이는 동벽이 1m 30㎝ 서벽이 1m 10㎝, 남벽이 1m 정도, 북벽이 50㎝ 남아 있었다. (밑줄은 필자)
>
> (문화재관리국 1974: 56)
>
> 1973년 7월 7일
> ... 단칠된 냇돌은 함몰부의 적석제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좀 더 외곽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서남편에서는 적석 외주부까지 이르고 있었다.
>
> (문화재관리국 1974: 18)

[그림 3]에서 가운데 함몰로 표시된 바깥 부분을 보면, 주칠과 부식 목질의 높이는 3.2~3.4m로 일정하여 이 높이에서 축조공정 상의 어떤 행위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한다면, 이 부식 목질은 외곽 뚜껑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높이의 적석 면 위로 주칠이 이루어진 듯하다(문화재관리국 1974: 18).[5] 그렇다면

5) 천마총 보고서(1974: 19)에서도 목곽에 주칠한 것이 주변의 잔자갈과 냇돌에 묻게 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박형열(2020: 95)도 비슷한 이유로 주칠은 냇돌이 아니라 목곽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본 듯하다.
또한, 목재흔과 주칠 냇돌의 함몰양상을 보면 흔히 보이는 U자형이 아니라, 남쪽에서 급격하게 무너진 형태로 보인다. 이는 근래 함몰부 토층이 조사된 쪽샘 41호와 44호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는데 필자는 이를 통해 목곽 높이를 비롯한 적석목곽묘의 구조를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자세한 검토는 정식 보고를 기다려 향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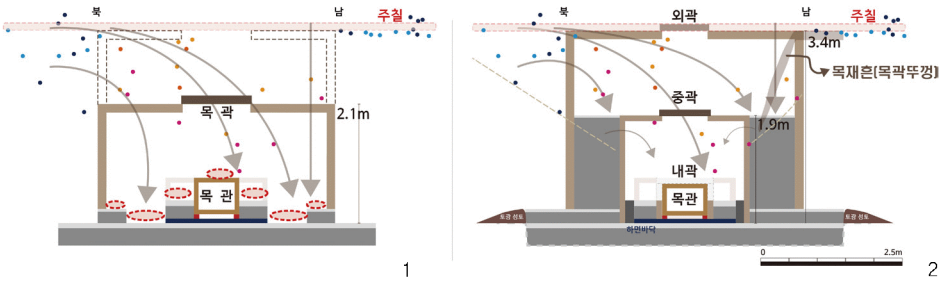


[그림 3] 천마총 목곽 함몰부 양상 – 부식 목재흔, 주칠 냇돌, 잔존 목곽높이
(문화재관리국 1974: 5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93, 103 재작도)

천마총의 목곽 높이도 기존 2.1m가 아니라 3.4m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6] 또한, 목곽 뚜껑은 목곽 범위를 넘어가도록 덮은 형태로 보인다.

물론 필자의 견해도 가능성 있는 여러 추정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겠으나, 어쨌든 기존의 복원안으로는 이러한 함몰양상을 설명하기 어려우며(그림 4-1), 이는 아래 관 · 곽의 구조를 살피면서 설명을 이어가겠다.

셋째, 관 · 곽의 구조이다. 보고서에서는 천마총을 1곽 1관으로 보았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이 3곽(외곽-중곽-내곽)[7] 1관으로 수정하고자 한다(그림 4-2).



[그림 4] 천마총 주칠 냇돌 함몰양상 비교(1. 1곽 1관 2. 3곽 1관 구조 복원도)

그 이유는 만약, 기존 복원안처럼 목관 위에 다른 구조물이 없다면 주칠 냇돌은 출토될 때 가장 밑바닥에서 확인되어야겠지만(그림 4-1, 점선), 그런 정황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기에 원래 '어떤 구조물'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필자는 이를 외 · 중곽 사이를 채운 냇돌로 생각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목재흔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곽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주칠 냇돌의 함몰양상을 대입해보면 대략 일치함을 알 수 있다(그림 4-2).

이러한 외 · 중곽 사이 채움[8]은 당시 조사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냇돌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6) 이러한 천마총 목곽의 높이에 대해 김대환(2016: 93~94)은 목곽 부식 목질이 처음 나오는 높이(2.1m)와 측벽부 적석의 높이(3.3m)를 근거로 그 높이를 2.1~3.3m일 것으로 추정하고, 박형열(2020: 43)도 역시 측벽부 적석의 높이를 근거로 3.8m로 보았다.
이처럼 연구자들 사이에서 천마총 높이는 기존 보고서의 2.1m보다 높을 것으로 보았으나, 이 같은 견해는 정황을 근거로 한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발굴자료를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였고 주칠 냇돌의 이러한 양상은 좀 더 실체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7) 황남대총 남분은 3중곽 구조로 보고서에서는 외곽-내곽-외관-내관으로 기술하였으나, 관 · 곽의 기능적 정의로 볼 때 외관은 내곽으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김용성 2007: 123).

8) 이를 '석단(石壇)'또는 '목곽 석단'으로 부르는 연구자도 있으나(김권일 2021: 205; 최병현 2024: 32), 황남

[그림 5] 천마총(1. 외 · 중곽 사이 채움과 상면 잔자갈(경문연 2019: 99)과 2. 출토유물 평면도(경문연 2019: 98, 100))

채운 상면(上面)에 잔자갈을 깔고(그림 5-1), 그 위로 유물[9]을 부장한 것이다(그림 5-2, 그림 6). 역시 그 높이도 외 · 중곽 사이의 채움이 없었다면 바닥과 가까워야 하겠지만, 최상단에서 나온 유물의 높이가 1.93m였고(그림 5-2), 대개 1.7~1.8m 부근[10]에서 출토하였다(문화재관리국 1974: 19). 이는 주칠 냇돌의 출토 정황과도 일치한다(그림 5-2). 즉, 외 · 중곽 사이 채움으로 보이는 공간에 주칠 냇돌과 유물이 출토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는 외 · 중곽 사이의 채움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고서에서는 천마총을 내곽이 없는 구조로 보았으나, 필자는 이 경우

대총 남분 보고서에서는 '잔자갈 채움'으로 보고하였고, 필자가 검토한 대로 그 축조 방법이 돌로 쌓은 단의 형태가 아니라 채우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므로 '외 · 중곽 사이 채움'으로 부르고자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목관주위 석단(石壇) 이나 외곽아래 석단(石段)도 '중 · 내곽 사이 채움'과 '중곽 바깥 채움'으로 봐야 하겠지만, 황남대총 남분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석단으로 보고한 바 있어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용어 사용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명명된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겠다.

9) 보고서에서는 그 일부를 목곽 상부의 유물로 보았으나(문화재관리국 1974: 65), 필자는 목곽 상부에 별도의 부장 공간이 없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10) 보고서에서는 적석 상단에서 4.2m로 기술하였는데, 적석 상단의 높이를 6.0(5.9)m로 보고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7~1.8m에서 토기가 출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확인 결과 적석 상단의 높이는 6.6m로 수정될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유물의 출토 높이는 0.7m 더 높아져 2.4~2.5m로 보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본다면 수정 목곽의 높이도 0.7m를 더해야 할 것(4.1m)으로 생각되나, 유물과 주칠 냇돌의 높이는 봉분 정상에서 높이를 기준으로 한 자료도 있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그 가능성 정도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하관[11] 전까지 목관주위 석단의 형태를 유지하기 힘들고, 둘째, 천마총 목관이 황남대총 남 · 북분 내곽과 너비가 비슷하여, 이는 목관이 아니라 내곽에 해당하고 그 안에 목관이 있는 구조였을 것으로 본다.

목곽의 부식에 따라 목곽상부에서 함몰 · 낙하된 일부 유물은 목관주위의 석단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유물 자체의 성격이 확실한 것을 빼고는 두 군데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문화재관리국 1974: 65

조사일지 1973년 7월 9일

... 목곽상부의 윤곽이 노출되면서 주위의 부식목질과 잔자갈 사이에서 각종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 토기들의 출토"레벨"은 대개 적석 상단에서 4.2m 내외의 깊이에 해당되었다.

문화재관리국 1974: 19

목곽의 측벽 상단의 윤곽이 노출되면서부터 동 · 서 · 남 3측벽 위에는 각종의 토기류가 부식된 목질과 잔자갈 사이에서 간격은 일정하지 않지만 열을 지워 배치되어 있었다(삽도 31).

문화재관리국 1974: 67

[그림 6] 목곽상부 토기류(문화재관리국 1974: 67)

넷째, 외곽 아래 석단은 채워서 만든 구조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중곽이 없는 상태에서 외곽을 놓기 위해 열을 맞춘 기초로 보았으나(문화재관리국 1974: 56), 필자는 이를 중곽을 만들고 그 바깥에 냇돌을 채운 것으로 보며 그 바깥 경계는 토광[12]이나 토광주위 성토[13]로 생각한다. 하지만, 천마총 발굴에서는 목곽 바깥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슷한 유형의 고분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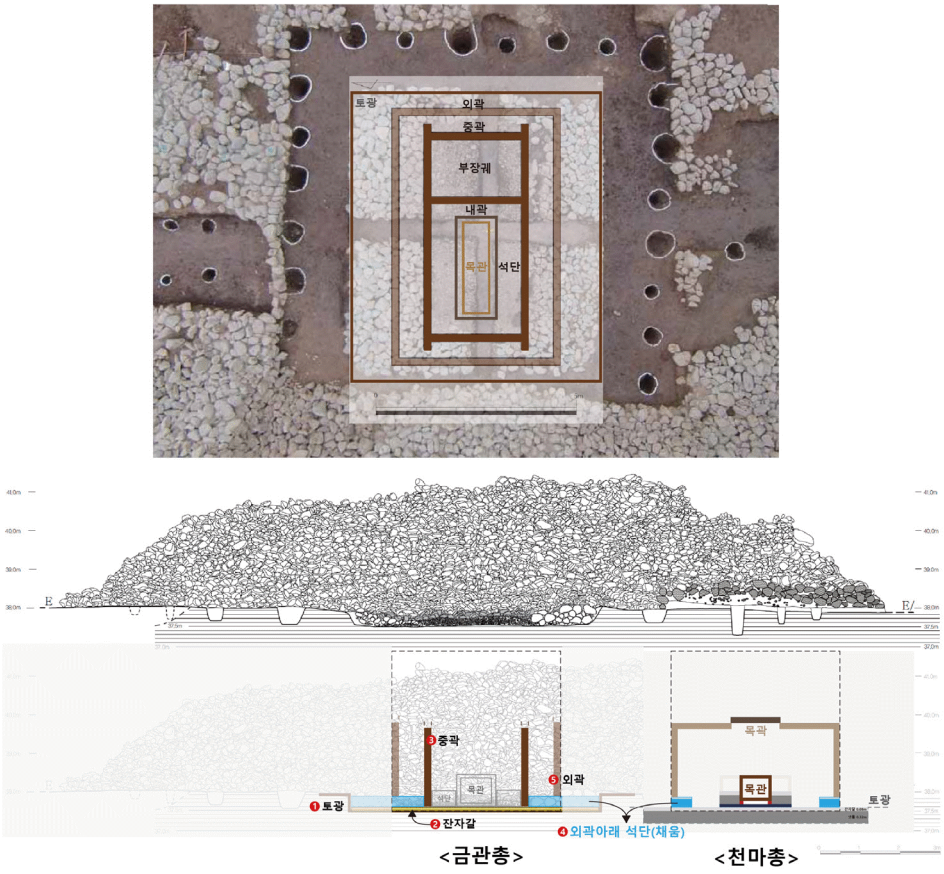
11) 지상식 적석목곽묘는 거대한 크기 때문에 하관 전 무덤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만든다고 보면 하관(下棺)은 축조 공정상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러한 정황과 함께 조사에서 확인된 목관 받침목 또한 그 증거라 본다(문화재관리국 1974: 62).

12) 최병현은 지상식 적석목곽묘를 조성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다른 무덤의 묘광과 구분하여'토광'으로 지칭하였는데(2016a: 38) 필자는 그 구별에 실익이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르고자 한다.

13) 김두철(2009: 75)은 황오동 100번지 유적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중소형 적석목곽묘의 축조과정을 복원하면서 1차 봉토 축조시 볼록렌즈 모양으로 묘광 주변을 쌓는다고 보았다. 필자는 이와 비슷한 공정이 지상식 적석목곽묘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금관총의 토광 주변에 약간 높은 부분이나(그림 8), 천마총, 황남대총, 쪽샘 44호묘 조사에서 그러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아직은 사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범위나 형태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공정이 토광을 파면서 나온 흙을 처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아 이 논문에서는 이를 1차 성토에서 세분하여'토광주위 성토'라 하고 묘광이 있는 묘제에서는 '묘광주위 성토'로 명명(命名)하고자 한다.

14) 다만, 천마총 발굴 종료 후 복원공사 때 토광의 전체적인 규모가 드러났고(그림 7), 이를 최병현(1992: 174)이 나중에 그 크기(7.6×5.6×0.4m)만 따로 언급하였는데, 황남대총 남 · 북분보다 금관총(7.2×6.2×0.4m)과 크기가 비슷하다. 따라서, 이 부분의 구조를 짐작하는 것에는 황남대총보다 금관총이 더 적합해 보인다.

[그림 7] 천마총 복원공사 때 드러난 토광(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126)



[그림 8] 금관총과 천마총 구조 비교(국립중앙박물관 2016: 76, 104 개변)

위 [그림 8]은 금관총과 천마총 복원도를 비교한 것이다. 그 공정은 ①토광을 파고 ②바닥에 잔자갈을 깔았으며 ③그 위에 중곽을 설치한 다음 ④중곽과 토광(토광주위 성토) 사이를 냇돌로 채운 후 ⑤그 위로 외곽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15] 최병현은 이 냇돌(④) 위로 다시 석단(石段)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최병현 2021:324), 필자는 이 부분이 기존 외곽아래 석단일 것으로 생각하며 천마총과 황남대총 북분 조사에서는 매장주체부 안쪽만 조사하고 중곽이 없는 구조로 생각하여 마치 석단처럼 보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천마총에 대입해보면, 그 바깥 경계는 토광의 깊이가 40㎝이고 이미 그 안에 냇돌과 잔자갈이 40㎝가량 채워져 있어 금관총처럼 토광 안에 채워진 형태는 아닐 듯하다. 추정컨대 토광 바깥으로 냇돌의 높이가 점점 낮아져 마무리되거나, 토광 외연을 둔덕처럼 쌓은 성토와 경계를 이루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필자는 '토광주위 성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그림 13), 후자의 형태로 판단한다.

이는 쪽샘 44호묘 발굴조사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되는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전모를 알 수 없지만, 근래 일부 공개한 자료에서 외곽과 중곽(내곽)의 크기를 제시하였고, 토광 안에 1차로 잔자갈 20㎝, 2차로 냇돌이 깔렸다고 보고하였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그 외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2차 냇돌의 채워지는 범위를 대체로 중곽과 토광주위 성토 사이로 보면, 이 부분의 축조공정은 금관총과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그림 9).

정리하자면, 이 부분의 공정은 금관총과 쪽샘 44호묘가 유사하며 천마총도 토광의 크기와 형태로 보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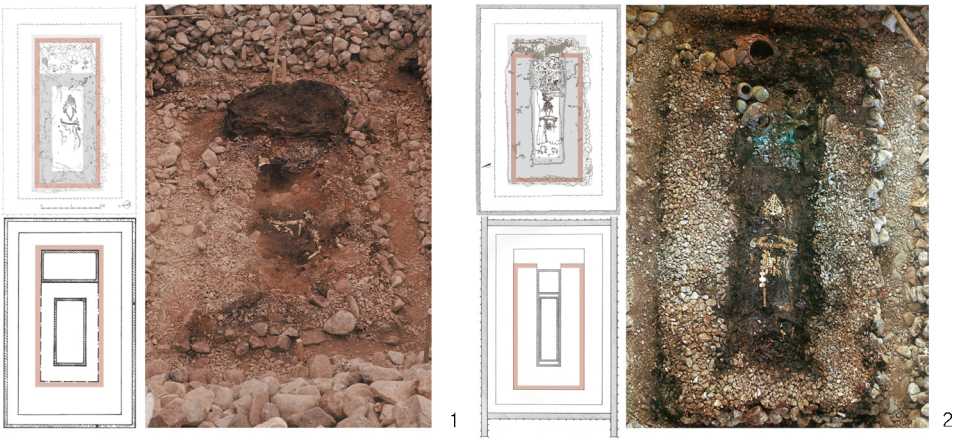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중곽 존재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 필자는 앞서 천마총의 관 · 곽 구조를 3곽 1관으로 수정하면서 중곽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그 근거 몇 가지를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목관주위 석단과 부장궤 주위를 냇돌로 두르고 있는데(그림 10-1, 진한 회색 음영) 이를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석단의 일부로 파악했으나(그림 10-2), 천마총에서는 석단에서 제외하면서 양 석단 사이를 넓게 설정한 듯하다. 이렇게 보고된 천마총의 석단 폭(1.8m)은 황남대총(북분:2.4m, 남분:2.3m)이나 다른 지상식 적석목

15) 재발굴 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2016: 103)에서도 그 위로 6.4×4.2m의 흔적 확인되어 외곽아래 석단(石段)으로 기술하였으나, 곽의 설치 순서는 중곽보다 외곽이 먼저 설치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를 외곽이 먼저 설치된 것으로 보려면 석단을 정연하게 깔고 외곽을 설치한 후 중곽을 놓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축조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동의하기 어렵다.

[그림 9] 쪽샘 44호묘 구조 및 축조공정 복원
(좌상–필자 촬영, 우상–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360도 vr, 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재작도)

곽묘와 비교해도 유난히 좁은데, 이는 중곽이 설치된 후, 부장품수장궤 사이를 채운 냇돌이 있었으나, 조사 때 이를 함몰 적석으로 보아 제외하면서 그 아래 석단의 폭도



[그림 10] 1. 천마총과 2. 황남대총 북분 석단 바깥 냇돌 비교(유물 배치도, 복원도, 전경 사진)

이에 맞추어 좁게 설정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곽이 없는 기존 보고서의 복원도 대로면 목곽 함몰시 그 내부의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였을 듯하다. 셋째, 천마총의 수정된 외곽 높이를 3.4m로 보면, 피장자를 안치하고 유물을 부장할 때 너무 높아 중곽이 없었다면 그 공정을 상상하기 어렵다(그림 26).[16]

[그림 11] 천마총 중곽 추정 위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112)와 석단 가장자리 냇돌

정리하자면 필자는 목관주위 석단과 부장궤를 포함하는 주변에 냇돌만큼의 공간이 추가되고 그 바깥에 중곽이 위치했을 것으로 본다.[17]

2) 적석부

그다음 적석부의 구조를 살펴보겠다.

첫째, 적석부의 높이이다. 보고서 기술(문화재관리국 1974: 56)에서는 적석 높이를 5.9m, 이중 개부적석을 2.6m, 측벽부 적석을 3.3m로, 복원도(문화재관리국 1974: 60)에서는 6.0m로 적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원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299~311)에서 적석 높이가 이보다 높음을 확인하였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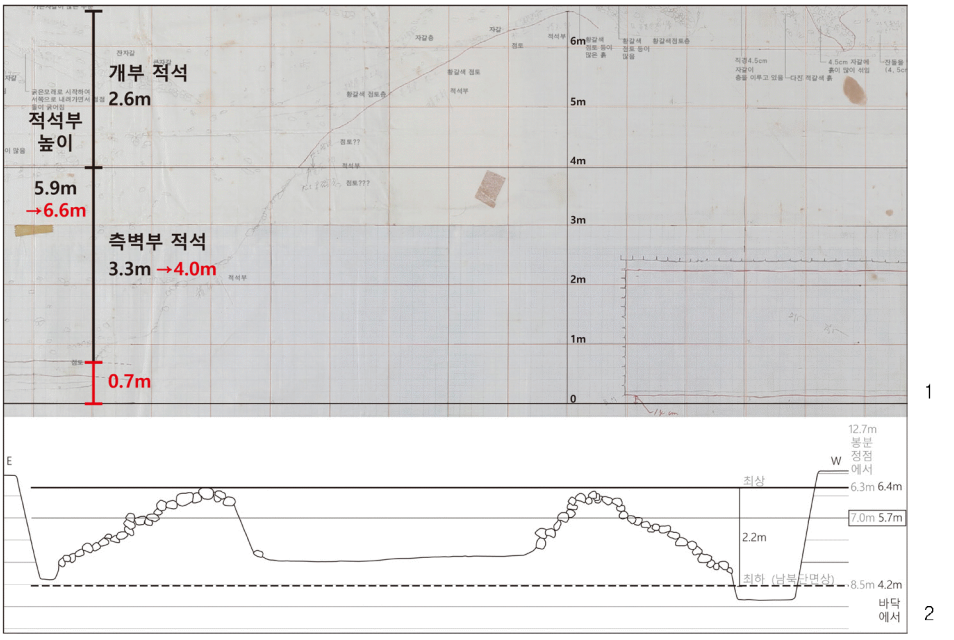
아래는 그 도면으로 [그림 12-1]을 보면 적석부는 대략 6.6m이고, 4m에서 위아

16) 이에 관해서는 성인 남자의 키와 횡구식 석곽 높이의 관계를 검토한 강승규(2019: 181)의 연구가 주목된다.

17) 필자와 비슷한 고민으로 최종규(2011)는 천마총과 황남대총 북분을 4중곽으로 복원한 듯하나, 이는 출토유물과 축조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상의 위치에 집중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평면상의 복원은 가능할지 모르나, 4개의 목곽 뚜껑을 포함하는 수직 단면상의 구조와 출토유물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

18) 도면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 보고된 천마총 적석부의 높이 5.9m는 동편 바닥에서의 높이로 판단되고 이를 목곽 바닥에 가까운 도면상 기준 높이에 맞추면 6.6m가 된다. 필자는 이를 명백한 오류로 생각하며 천마총의 적석 높이를 봉분과 목곽의 기준으로 사용한 지점에 맞추어 [그림 12-1]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래로 개부와 측벽부 적석으로 나뉜다. 그 아래 [그림 12-2]에서 개부적석의 높이는 4.2~6.4m이고, 그 아래는 측벽부 적석이 된다.[19] 두 도면의 내용이 대략 일치하므로 필자는 천마총의 적석 높이를 6.4~6.6m, 측벽부 적석 높이를 4.0~4.2m로 수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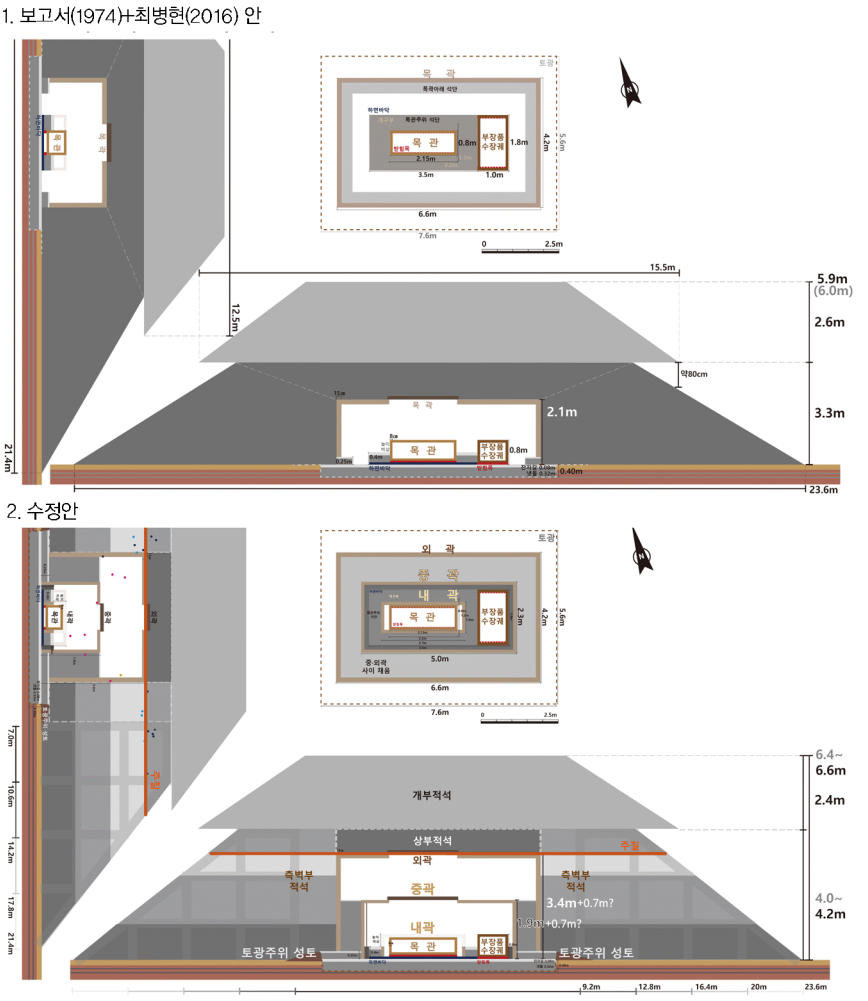


[그림 12] 1. 천마총 동서 토층도 2. 동서 적석 단면도(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300, 301 개변)

둘째, 가구 시설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조사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필자도 그 유무에 대한 이견(異見)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20] 다만, 고분의 축조가 일정한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비슷한 설계로 만들어진다고 보면, 가구시설이 없는 무덤도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를 적석부 외형복원에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측벽부 적석의 외형은 가구시설의 설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하겠다.

19) 적석 단면도는 필자가 2019년 처음 공개할 당시, 원도에서 높이가 7.0m로만 표기되어 이를 지표 기준점에서의 레벨로 보고, 재작도하여 원도와 함께 수록한 것이었다. 이는 기존 제시된 적석 높이와 맞지 않아 당시에도 의문이 남았지만, 자료 제공에 의미를 두고 수록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재검토한 결과, 이 수치는 지면에서의 높이가 아닌 봉분 정상에서의 깊이임을 알 수 있었다.

20) 지금까지 조사된 지상식 적석목곽묘 가운데 가구시설이 없는 경우는 천마총이 유일하므로 앞으로도 가구시설이 없는 사례가 더 확인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천마총만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림 13] 1. 천마총 복원도(최병현 2016a: 도2 · 3), 보고서(문화재관리국 1974)와 2. 수정 복원도

이에 필자는 적석부의 동서가 23.6m이고 상부적석 끝단에서 측벽부 적석 사이의 간격이 최대 0.8m,[21] 그리고 황남대총 북분의 기둥 사이의 거리가 1.8m인 점[22]을 참조하여(문화재관리국 1974: 55) 천마총 적석부의 외형을 [그림 13]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1) 이 개부적석의 끝단과 측벽부 적석 사이의 거리는 보통 10~50㎝이고 동단에서 최대 폭을 80㎝로 적고 있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그림 4) 동단의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하기 때문이며 이 부분이 원상(原狀)에 가까울 것으로 본다.

22) 황남대총 남분의 기둥 사이는 1.5m로 이를 대입하여 구조를 복원하면 외곽과 내1진주로 상정되는 곳까지의 사이 공간이 지나치게 넓다. 북분의 기둥 사이 거리는 1.8m인데 이를 적용하여 복원하면 [그림 13]과 같다. 이를 보면 개부적석 끝단과 측벽적석 사이가 0.8m보다 약간 넓은데 이를 정확하게 맞추자면 기둥 사이의 거리는 더 좁아진다.

2. 황남대총 북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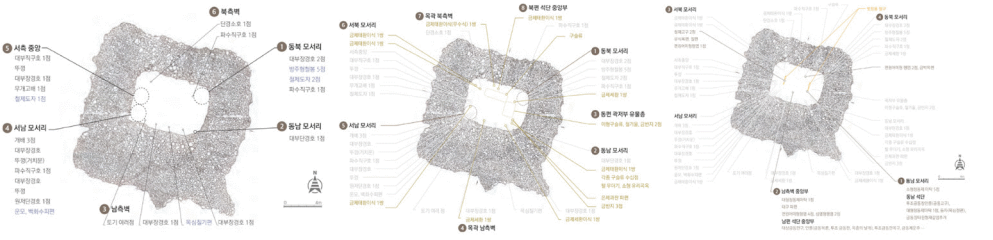
황남대총 북분에서도 앞서 천마총에서 살펴본 중곽의 존재와 외곽 아래 석단, 중 · 외곽 사이의 채움, 또 그 위에 부장 유물이 놓이는 구조가 비슷하게 관찰된다.

1) 매장주체부

첫째, 외 · 중곽 사이 채움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나온 유물로 그 높이를 추정하면 1.7m이다.[23] 이는 유물을 수습하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채워진 냇돌 위에 잔자갈을 깐 후 유물을 부장하였고 이후 함몰로 경사를 이루게 된 듯하다(그림 14).

[그림 14] 황남대총 북분 중곽 뒤채움 상단 유물과 수습 모습(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9: 83, 139)

보고서 기술을 검토하면 가장 바깥부터 토기류, 그 안쪽에 장신구, 가장 안쪽에 마구류가 점점 낮아지며 출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15). 특히, 가장 바깥에서 확인된 토기의 분포범위는 1.68~1.18m로(문화재연구소 1985: 54), 이는 기존의 복원도



[그림 15] 황남대총 북분 함몰부 유물 출토모식도-토기류, 장신구류, 마구류(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a: 138~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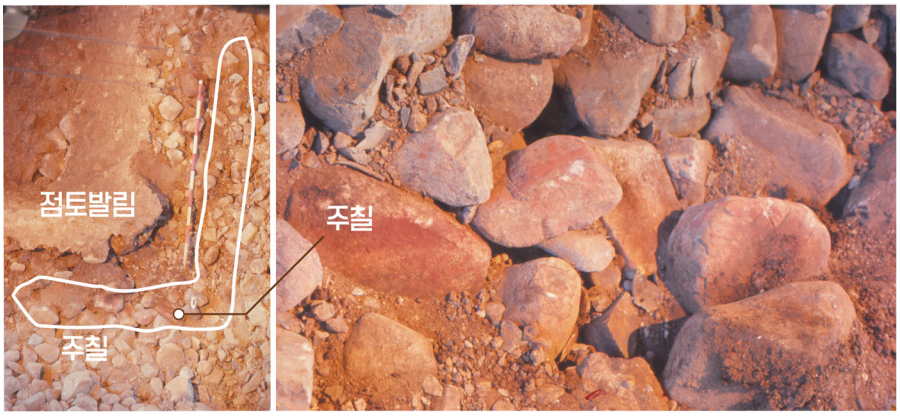
23) 가장 높은 곳에서 출토한 유물은 목곽 서북 모서리에서 나온 파수부직구호로 목곽 상부에서 2.32m 아래다. 이를 환산하면 4.0m-2.32m=1.68m로 높이는 약 1.7m이다.

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24] 외 · 중곽 사이 채움이 존재하고 중곽 상면에 부장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채움은 천마총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곽의 존재를 말해주며 이에 더하여 '凸'자형 부장 공간에 중곽이 없었다면 함몰시 형태 유지가 어려웠을 듯하다(그림 17-1).

둘째, 황남대총 북분도 외곽보다 중곽을 먼저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천마총과 마찬가지로 목곽아래 석단을 포함하는 하부구조를 보면 동일한 공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17).

셋째, 목곽 뚜껑 부근의 주칠에 관한 부분이다. 황남대총 북분에서는 천마총과 달리 그 정황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한 장의 사진이 단서가 될 듯하다. [그림 16]은 함몰토와 측벽부 적석을 함께 조사 중인 사진인데, 점토 발림으로 보아 목곽 측벽 윗부분으로 보이고 흰색 실로 주칠의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이외 자세한 정황은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앞서 천마총의 사례를 참고하면 목곽 뚜껑을 설치하고 그 상면과 주변까지 주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황남대총 북분 주칠 냇돌(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a: 122 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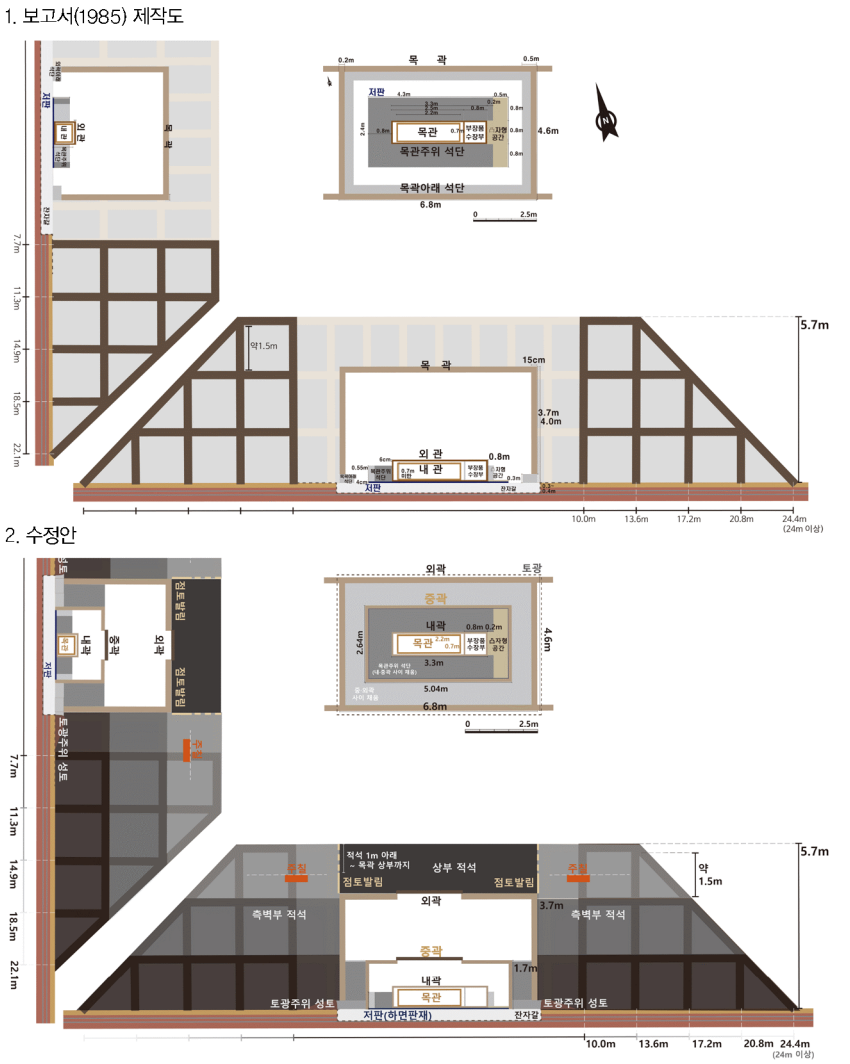
2) 적석부

적석부에서 주목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목곽 내벽 상단의 '점토 발림'이다. 그 일부가 함몰되었다고 보면 원래는 측벽부 적석 상단 끝까지 있었을 듯하고, 그 평면 범

24) 만약 이러한 출토상태가 기존 복원안에서 가능하려면 유물 아래 잔자갈과 냇돌이 함몰시 옆에서 들어온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는데, 외곽 흔이 처음 확인된 후 하단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 설명이 어렵다.

위는 외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부적석의 범위는 가구시설까지가 아니라, 목곽의 평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듯하다.[25)]

이러한 정황은 황남대총 북분이 개부적석이 없는 구조여서 다른 고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알 수 없으나, 필자는 이 두 가지 정황을 참조할 때, 사방적석과 측벽



[그림 17] 황남대총 북분 수정 복원도(남분과 연접은 반영하지 않음).

25) 황남대총 남분 보고서에 제시된 북분의 단축 단면도(문화재관리국 1993, 도면4)를 참조하면, 목곽상부의 측벽부 적석 내면이 목곽 선상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으므로 점토 발림의 위치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이는 [그림 17-2]와 같으며 이는 김대환(2016: 111)의 금관총 복원안과는 차이가 있다.

부 적석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공정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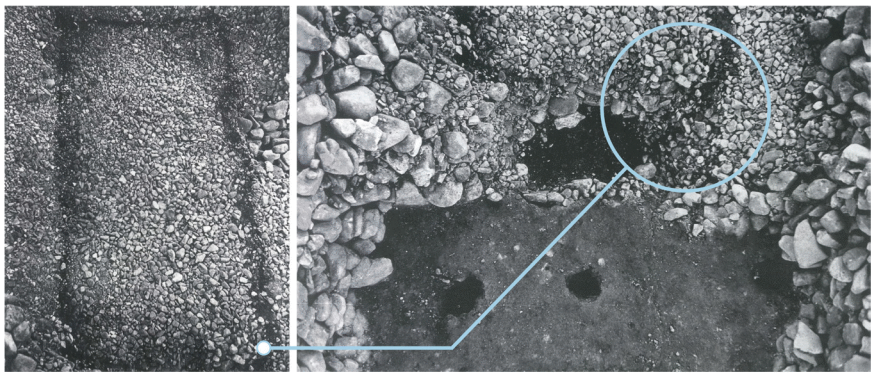
지금까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복원도를 작성하면 [그림 17]과 같다.

3. 황남대총 남분

1) 매장주체부

황남대총 남분은 천마총, 황남대총 북분과는 다르게 외 · 중곽 사이가 잔자갈로 채워져 보고서에서도 중곽을 포함한 구조를 원형(原形)에 가깝게 복원한 듯하다.

하지만, 남분에서도 달리 생각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는 곽 아래 깔린 잔자갈의 범위이다. 보고서에서는 목곽 바닥 전면에 잔자갈을 깐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필자는 중곽이 외곽보다 먼저 설치되고 그 아래에만 잔자갈을 깐 것으로 생각하며, 중곽과 외곽 사이는 중곽 상단까지 채운 잔자갈로 본다.



[그림 18] 기저부 중곽 하단 목흔(문화재연구소 1993: 도판 72-2, 76-1 재편집)

위 [그림 18]을 보면, 기저부 조사단계에서 평면상 중곽의 목흔이 뚜렷하며 이는 단면상에서 잔자갈 아래로 연장되는 흔적이 보인다. 또한, 이 중곽 안쪽 잔자갈에만 주칠이 있어 중곽 안팎으로 서로 다른 공정에서 잔자갈이 깔린 것으로 생각된다.

2) 적석부

첫째, 황남대총 남분의 외곽 뚜껑 주위에도 주칠(朱漆)한 정황이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함몰부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주칠이 나오는 것으로 적고 있어(문화재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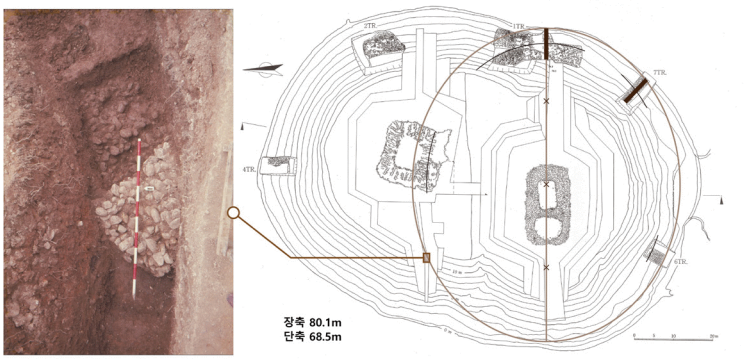
소 1994: 12), 개부적석부터 그 범위에 포함되는데 천마총처럼 정황을 알 수 있는 도면이나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정황은 알기 어렵다.

둘째, 가구시설의 기술 내용에서 단순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한다. 남분의 가구시설은 내1 · 2 · 3진주와 외진주 모두 4개의 기둥이 돌아가는데 장축 방향에서 다른 기둥의 간격은 1.5m이지만, 내2 · 3진주 사이는 1m이다. 이를 복원하면 측벽부 적석은 마치 팔작지붕처럼 그려지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각(내 1 · 2 · 3 · 외) 진주 사이의 거리가 16.2m-19.2m-21.2m-24.2m가 아니라 16.2m-19.2m-22.2m-25.2m로, 적석부의 동서 길이도 28.2m로 수정하고자 한다.

3) 봉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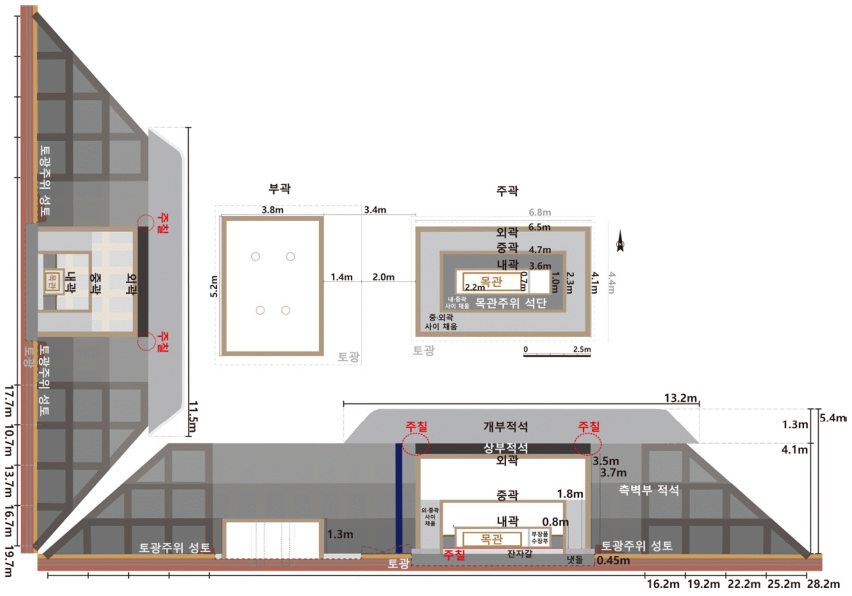
황남대총은 발굴 당시의 조사방침과 촉박한 일정 탓에 봉토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덤의 경계인 호석도 일부만 이루어져 정확한 경계를 추정하기에 아쉬움이 있었다. 필자는 추가로 호석으로 추정할 만한 정황이 있어 밝히고자 한다.

아래 사진은 황남대총 북분 조사 때, 서편 트렌치 아래 배수로에서 확인한 석렬이다. 필자는 이를 남분의 호석으로 보고 배수로에서 꺾어지는 부분임을 참조하여 그 위치를 찾았다. 또한, 타원 작도법을 이용하여 봉분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었는데 Tr 1에서 남분 호석은 상면만 표시되어 그 아래를 포함하는 범위는 Tr 7의 호석 폭을 참조하여 복원하였다(그림 19). 그 범위는 장축 80.1m, 단축 68.5m이다.



[그림 19] 황남대총 남분 호석 추정 석렬과 봉분 재복원
(문화재연구소 1993, 도면 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a: 117 필자 재작도)

지금까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복원도를 작성하면 [그림 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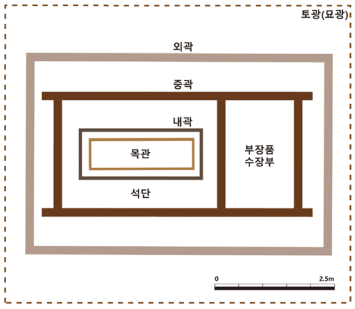
[그림 20] 황남대총 남분 복원도

4. 금관총

금관총의 구조는 일제강점기 발굴(朝鮮總督府 1924)과 최근 재발굴 성과로 추정 복원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2016). 그 제원은 [표 3]과 같으며 평면 복원도는 필자도 동의하므로 재발굴보고서에 따르기로 하겠다. 다만, 금관총의 매장주체부 구조를 내곽이 있는 3중곽으로 보아, 원래 목관은 내곽으로 그 안에 목관은 황남대총과 천마총을 참고하여 2.2×0.8m로 설정하고자 한다(그림 21).

[표 3] 금관총 매장주체부 제원(국립중앙박물관 2016, 표 6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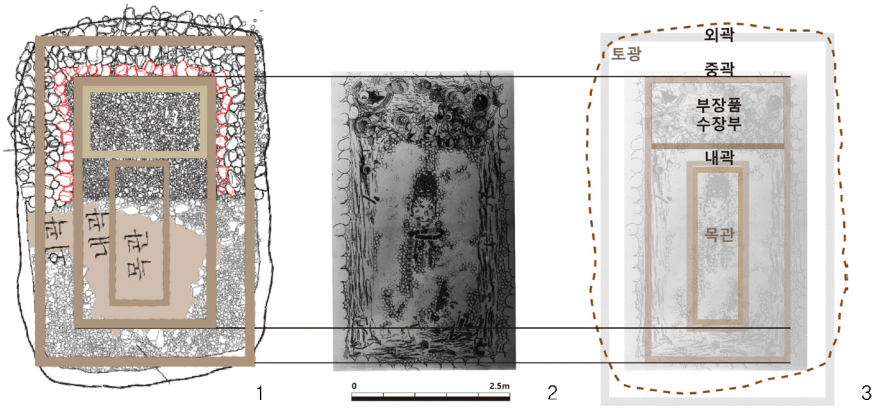
	묘광(토광)	외곽	중곽	내곽	목곽
크기 (동서 ×남북)	7.2 ×6.2	6.4 ×4.2	5.15 ×2.36	2.51 ×1.0	2.2 x0.8



[그림 21] 금관총 매장주체부
(국립중앙박물관 2016: 도면 12 개변)

5. 서봉총

서봉총도 일제강점기 조사(小泉顯夫 1927)한 것을 최근 재발굴(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2] 1. 서봉총 평면 복원도(국립중앙박물관 2020: 52), 2. 유물배치도(유리건판 27555), 3. 수정복원도

2014, 2020)하였는데 그 복원된 구조가 다른 지상식 적석목곽묘보다 작다. 재발굴 당시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자료 검토와 추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 22-1]은 재발굴 보고서의 복원도로, 일제강점기 기록과 재발굴 성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재발굴 보고서에서 내곽은 바깥 석단(石壇)[26]의 안쪽으로 추정하여 3.8×2.1m이고, 외곽은 1926년 조사 당시 외곽흔을 표시한 사진(그림 23)에서 그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규모는 중곽에서의 거리를 0.5~1.0m로 보아 4.8~5.2×3.2~3.4m로 추정하였으며 묘광은 5.8×4.0×0.5m으로 보고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20: 46).

이를 보면 서봉총의 목곽 길이가 다른 고분에 비해 상당히 짧다. 그러나 필자는 자료를 검토하던 중, 당시 유물의 출토상태를 기록한 도면(그림 22-2)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재발굴 복원도와는 다른 정황이 보인다.

피장자 주위로 잔자갈이 상면에 깔린 석단이 있고 그 바깥으로 목곽이 있다. 다시 그 바깥으로는 냇돌이 그려져 내부와 구분된다. 이것을 중곽 너비를 기준으로 크기를 맞추고 재발굴 보고서의 복원도와 비교하면, 맞지 않는데 이는 재발굴보고서의 복원도에서 토광 안에 외곽을 위치시키려고 한 것에서 발생한 오류로 짐작된다.

필자는 외곽이 토광 안이 아니라 중곽과 토광 사이를 채운 냇돌 위에 놓이고 그 범위는 토광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클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구조는 앞서 언급한 중곽이

26) 여기서 석단은 石壇으로 적고 있으나, 위치상으로 외곽 아래 놓이므로 石段이 맞다.

먼저 설치되고 외곽이 나중에 설치되는 정황을 잘 보여준다. 이에 그 구조를 복원하면 외곽은 필자도 그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지만, 천마총과 황남대총을 참조하여 내 · 외곽과 중 · 외곽 사이의 너비가 대략 비슷하다고 보면 외곽은 5.9×3.7m, 중곽 4.5×2.3m, 내곽 2.7×1.0m로 복원할 수 있다(그림 22-3).[27]

[그림 23] 서봉총 내 · 외곽흔(유리건판 007736, 점선은 필자-원사진의 실 참조)

Ⅳ. 축조공정 복원

지금부터는 앞서 검토한 구조를 바탕으로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축조공정을 복원하고자 한다(표 2). 모호한 설명에서 오는 불확실성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마다 모식도를 함께 제시하겠다(그림 26).

필자가 생각하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축조공정은 [표 4]와 같으며 기초작업과 '하관'을 전후한 공정으로 크게 4부분, 세부적으로 23개의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광 조성에 앞서 가구시설이 설치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44호묘 발굴조사(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8)로 밝혀진 사실이며 가구시설의 내1진주와 토광 주위 성토의 선후관계를 검토한 결과이다.

둘째, 앞서 검토했듯이 외곽보다 중곽을 먼저 만들고 그 뒤 외곽아래 석단은 중곽과 토광주위 성토 사이를 채운 형태라는 것이다.[28] 이는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정연

27) 이러한 수치는 추정에 의한 것으로 정확할 수 없으나, 중요한 점은 재발굴 보고서에서 복원한 외곽이 실제로는 중곽의 크기에 가깝고 외곽은 정황상 그 바깥에 있다는 것이다. 그 크기는 외곽을 기준으로 지상식 적석목곽묘 가운데 가장 작으며 쪽샘 44호와 비슷하다.

28) 앞서 천마총과 금관총, 44호의 하부구조를 검토해서 중곽을 외곽보다 먼저 설치한다고 보았는데 그 시작은 먼

[표 4] 지상식 적석목곽묘 축조공정 복원 (회색은 필자가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임)

대분류	세부공정	비고
1. 기초작업	① 묘지선정 ② 목곽위치 설정 ③ 봉분범위 설정 ④ 정지작업 ⑤ 가구시설 설치 ⑥ 토광+토광주위 성토 ⑦ 목곽 기초(잔자갈 or 냇돌)	쪽샘 44호 성과참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3)
2. 하관 전	① 중곽 설치 시작 ② 중곽 · 토광(토광주위 성토) 사이 채움(외곽 기초) ③ 외곽 + 외 · 중곽 사이 채움 + 중곽 측벽 완성 + 측벽부 적석 + 1차 봉토 + 호석[29] 동시축조 ④ 내곽 설치 ⑤ 중 · 내곽 사이 채움 ⑥ 부장품 부장 ⑦ 목곽 뚜껑 설치 + 주칠 ⑧ 측벽부 적석 완성	외곽보다 중곽이 먼저 설치시작 기존 "외곽아래 석단"에 해당 외곽과 중곽 동시축조 외곽과 측벽부 적석 · 봉토 동시 축조 "목관주위 석단"에 해당 목곽 폐쇄가 아닌 설치할 때 주칠을 한다고 봄
3. 하관	① 하관 ② 중곽 폐쇄 및 부장품 부장 + 순장 ③ 외곽 폐쇄 및 의례 (주칠)	
4. 하관 후	① 상부적석 ② 개부적석 및 밀봉점토 ③ 2차 봉토 및 밀봉점토 ④ 정상부 의례(마구류) ⑤ 주변부 의	

한 석단 구조는 단을 쌓아 조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광 내부에 기초를 쌓은 후 별도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의심된다. 비슷한 이유로 목관주위 석단(石壇) 역시 중곽과 내곽 사이의 채움으로 생각한다.

셋째, 사방적석이 측벽부 적석과 축조 공정상 구분되지 않고 외곽과 봉토까지 함께 축조된다는 것이다. 그 주요 근거는 앞서 살펴본 적석부 주칠의 평면 범위이며 이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넷째, 냇돌과 흙 등, 고분 축조 재료의 조달에 관한 부분이다. 필자는 대릉원지구 동편의 쪽샘지구 조사에서 고분 주위를 돌아가는 구상(構想) 유구와 채토 유구를 확인하였고 그 목적은 외장(外裝)과 의례 그리고 재료 조달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정익재 2017). 비록 모든 재료를 여기서 가져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유구로 확인된 이상 유력한 후보군임은 부정할 수 없다.[30]

저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나, 중곽을 약 2m 높이까지 한 번에 완성하기는 힘들다고 보여 그 완성은 외곽을 동시에 축조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29) 호석의 설치 시점을 빠르게 보면 측벽부 적석을 쌓기 시작한 때부터, 늦게 보면 하관 후 2차 봉토 축조 때까지도 볼 수 있으나, 필자는 하관 이후의 공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장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아 1차 봉토와 함께 호석을 쌓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

30) 지금까지 적석목곽묘의 축조 재료를 어디서 조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주로 형산강 유역인 서천이나 북천, 남천

한편, 이 일대의 고지형과 입지(立地)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대릉원 북쪽과 노서동 일대를 원래 저지대로 보아 고분이 이러한 습지와 용천을 피해 입지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심현철 2018b: 251), 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저지대일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그 상당 부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무덤 조성 시 채토(採土)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즉, 과정의 선후(先後)를 달리 보는 것이다.

[그림 24] 중심지고분군 내 대형분의 분포와 입지(심현철 2018b: 250 개변) – 흰 부분과 흰색 선은 필자, 회색은 습지

위의 [그림 24]의 흰색으로 표시한 굴곡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보기 힘들며 이러한 지형을 피해 무덤을 조성하였다고 보는 것도 어색하다. 또한, 이곳이 원래 습지이고 무덤을 나중에 조성한 것으로 보려면, 기존 습지 위에 무덤의 기초를 쌓고 조성한 흔적이 있어야 하지만,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분의 밑바닥은 일부 성토로 생각되는 부분과 점토 면이 있으나, 두텁지 않았고 원지형의 높낮이를 그대로 살려 무덤을 조성한 정황도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습지에 성토하여 무덤을 조성한 듯 보이진 않는다.[31] 따라서 이러한 굴곡은 무덤 조성시 주변을 채토하면서 생긴 지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봉분의 양을 생각했을 때 그 범위도 아래 표시된 습지 영역처럼 상당히 넓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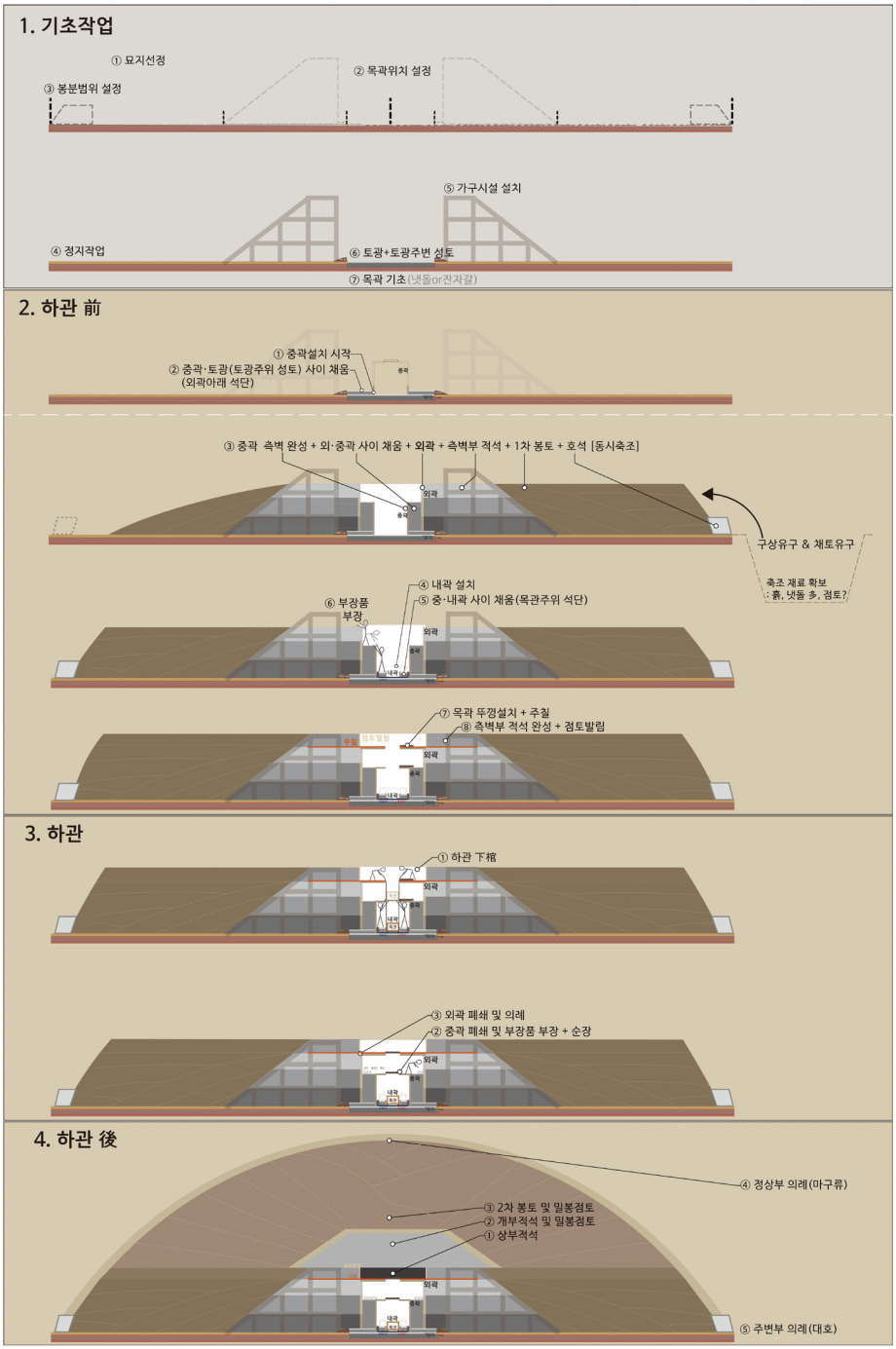
그 구체적인 형태는 쪽샘 I43호묘 주변의 구상(構想) 유구처럼 무덤 주위를 둘러싼 형태일 수도 있으나, 모든 무덤 주위에서 이러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일부는 일종의 채토장처럼 커다란 수혈의 형태일 가능성도 있다.[32]

그리고 선상지의 표층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어왔으나(황상일 · 윤순옥 2014: 27; 권용대 2009: 75),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유구가 확인된 이상 이제는 이를 검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31) 이러한 채토 행위는 이 일대에서 굴광면이 확인되면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는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천마총 발굴에 앞서 진행한 주변 지하 유구 조사에서 상당히 아래까지 조선시대 백자편이 나오고(문화재관리국 1974: 46, 47), 비슷한 양상이 금관총 일원의 조사(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33)에서도 확인되므로 고분 조성면과 그 주위의 높이차는 분명해 보인다.

32) 이 고분 주변의 구상유구나 채토 유구에 대해서는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별도의 논문으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축조공정의 복원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5).



[그림 25] 지상식 적석목곽묘 축조공정 복원도

Ⅴ. 지상식 적석목곽묘 구조의 정형성

지금까지 천마총을 비롯한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를 살피고 축조공정을 복원해 보았다.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쟁점을 살피고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면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하고자 한다.

1. 관 · 곽의 구조

앞서 필자는 몇 가지 조사 정황을 검토하여 근거로 제시하였고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관 · 곽 구조가 3곽 1관으로 무덤마다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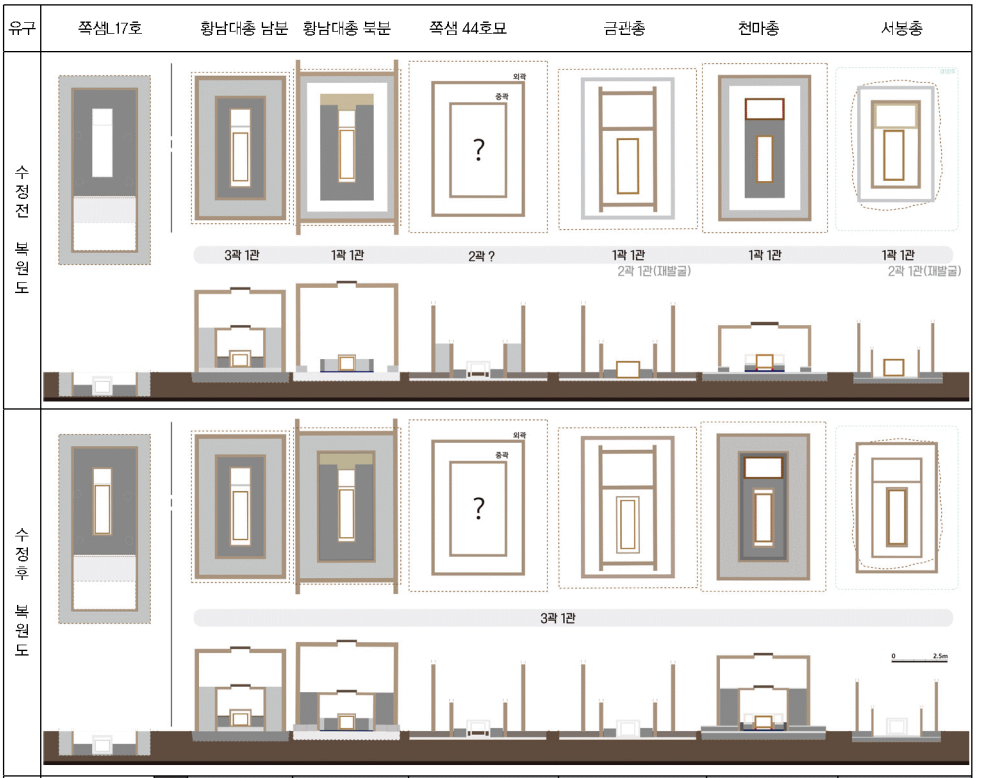
첫째는 천마총과 황남대총 북분에 중곽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는 외 · 중곽 사이의 채움과 부장 유물 그리고 주칠 냇돌의 함몰양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둘째는 그렇다고 보면 중곽이 외곽보다 먼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금관총의 재발굴 성과와 쪽샘 44호묘를 검토하여 알 수 있었는데 외곽아래 석단은 그동안 정연하게 쌓은 구조로 보았으나, 실제로는 중곽과 토광주위 성토 사이에 채워지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위에 외곽이 놓이게 되어 중곽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셋째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목곽 높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천마총 목곽 높이를 2.1m에서 3.4m로 수정한 결과로, 앞서 언급한 주칠 냇돌의 출토 정황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처럼 관 · 곽 구조 연구에 대한 쟁점은 '중곽의 존재가 인정되느냐'의 문제에서 파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더해 적석목곽묘의 계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선행묘제의 외곽이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중곽에 해당하여[33] 황남대총 북분과 천마총에서처럼 이것이 생략된 구조는 애초에 성립하기 힘들다고 본다(그림 27). 따라서

33) 이러한 묘제 간의 관 · 곽의 크기를 비교하는 선행 연구(박형열 2020: 93)가 있었고 필자도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군집 내의 편차가 커서 이를 묘제 사이의 정형성을 밝히는 결과물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필자는 이러한 개별 무덤 사이의 크기가 시기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의미 있는 유사성은 시기가 비슷한 무덤 가운데 위계가 비슷한 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포항 마산리 적석목곽묘와 쪽샘 L17호 주곽의 평면구조가 유사하고, 임당 G6호의 내곽과 외곽이 황남대총 남분의 내곽과 중곽에 대응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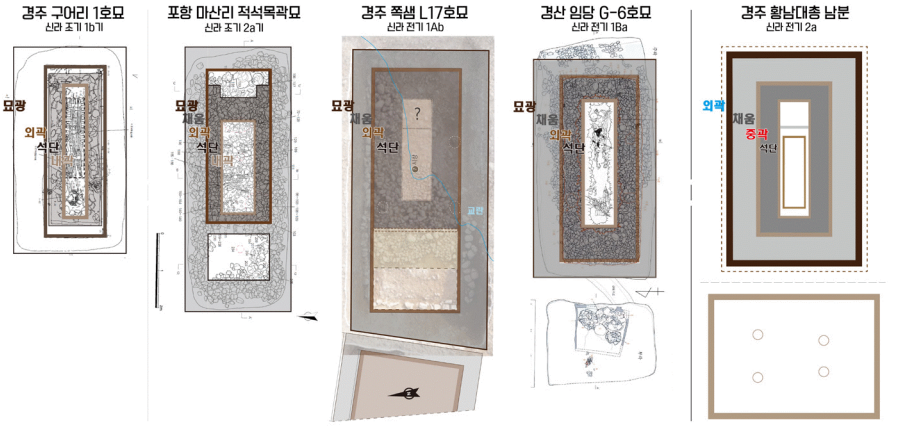


	쪽샘L17호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북분			쪽샘 44호묘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길이	너비	높이
–	–	–	–	토광	6.7	4.3	0.45	7.0	4.8	0.4	7.7	6.2		7.2	6.2	?	7.6	5.6	0.4	5.8	4.0	0.5
묘광	8.48	4.12	(1.08)	외곽	6.5	4.1	3.7	6.8	4.6	4.0	6.1	4.2		6.4	4.2	?	6.6	4.2	3.4	5.9	3.7	?
외곽	7.40	2.78	(1.08)	중곽	4.7	2.3	1.8	5.04	2.4	1.7	4.3	2.6		5.15	2.36	?	5.0	2.3	1.9	4.5	2.3	?
내곽	3.09	0.92		내곽	3.6	1.0	0.8	3.3	0.8	0.8	?	?		2.51	1.0	?	2.7	1.0	0.8 미만	2.7	1.0	?
목관	2.2	0.7	0.7 미만	목관	2.2	0.7	0.7 미만	2.2	0.7	0.7 미만	?	?		2.2	0.8	?	2.2	0.7	0.7 미만	2.2	0.8	?

[그림 26] 지상식 적석목곽묘와 쪽샘 L17호 구조 비교(회색 글자는 추정)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관 · 곽구조는 중곽을 포함하는 3곽 1관으로 복원하는 것이 맞고, 이에 그 정형(定型)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34]

34) 그 외 관 · 곽의 구조에 대한 논의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신라지역 무덤에 목관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홍보식 2023a, b). 이에 대해 필자는 황남대총 북분의 성과물을 재정리하면서 목관이 존재하는 명확한 정황(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1: 106~107)을 확인하여,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또한, 외곽을 가구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견해(박형열 2020: 59)에 대해서 필자는 구체적인 축조공정을 복원해 볼 때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첫째,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외곽이 실질적으로 곽의 기능을 하고 둘째, 3중곽이 처음 등장하는 황남대총 남분의 부곽 크기를 보면 외곽의 폭과 비슷하며 셋째, 가구시설이 없는 상부적석식인 금령총에서도 외곽에 해당하는 크기의 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외곽은 가구시설이 아닌 '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림 27]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선행묘제 평면구조 비교(편년은 최병현 안에 따름)

2. 목곽 상부 공간

필자는 목곽 상부에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 위에 부장하였다고 본 유물들은 원래 중곽 뚜껑과 그 옆의 외 · 중곽 사이 채움 위에 놓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이들 고분에서 목곽 뚜껑이 확인되기 전에 그 공간을 유추할 만한 흔적[35]을 찾을 수 없었고, 상부에서 함몰된 것으로 본 유물의 출토양상이 정연하다는 것이다. 특히, 토기류의 배치가 외곽 벽을 따라 가지런하고 그 안쪽에 배치된 유물들은 가운데로 쓸려 들어간 정황만 확인되었을 뿐이다(그림 5 · 15).

둘째, 상부공간이 있다고 보기엔 황남대총 북분에서 함몰된 적석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보고서 내용(문화재관리국 1985: 20)을 도면으로 나타내 보면 알 수 있는데, 상부적석( )과 함몰 적석( )의 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그림 28).

필자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목곽 상부 공간은 별도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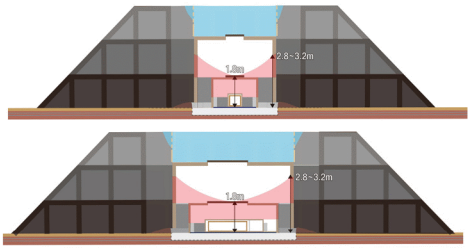
그렇다면 자연스레 목곽 뚜껑과 개부적석 사이에는 적석이 있게 되는데 이를 김대환(2016)은 상부적석으로 구분하였고 그 범위는 목곽과 사방적석 위를 덮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앞서 검토한 대로 황남대총 북분 목곽 상부의 점토 발림으

35) 적석부 상단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측벽재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뚜껑은 그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흔적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

조사일지 74년 10월 6일

… 또 함몰부를 보면 벽면이 거의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G.L상 2.8~3.2m에 이르러 낙하된 냇돌이경사를 이루며 나타나고 있는데 남북은 경사가 급하나 동서는 비교적 완만하며 함몰부중심의 바닥면은 G.L 상 1.8m로 나타나고 있다.

황남대총 북분(문화재관리국 1985: 20)



[그림 28] 상부적석( )과 함몰적석( ) 비교

로 보아 이 범위에만 상부적석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방적석과 측벽부 적석의 축조공정과 연관하는 문제로 아래에서 검토를 이어가겠다.

3. 사방적석의 구분

필자는 측벽부에서 사방적석이 공정상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측벽부 적석을 먼저 축조하면 그 안으로 축조 재료의 반입과 목곽의 설치가 어려워지므로 고분 축조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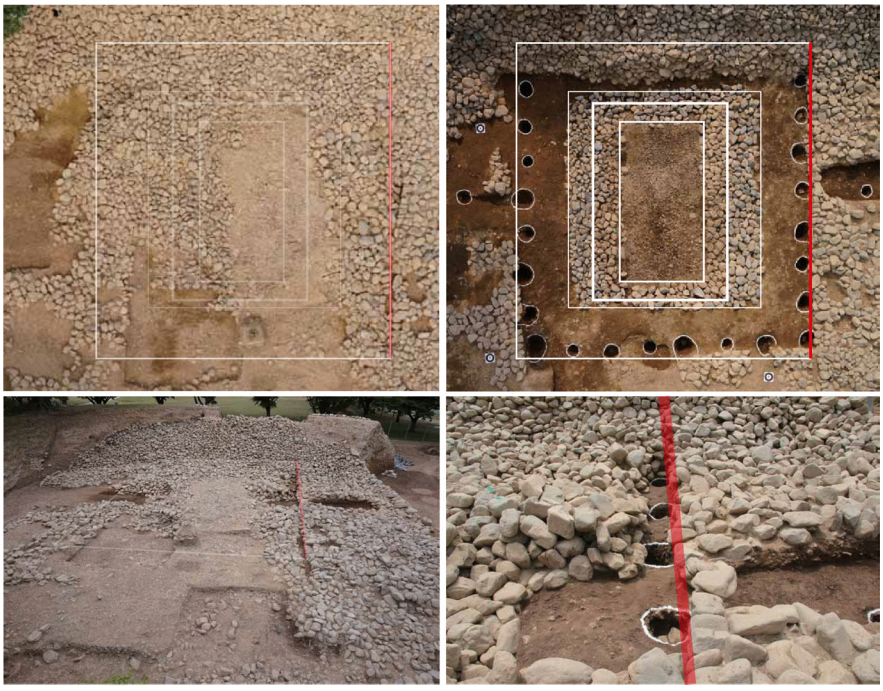
둘째, 황남대총 북분의 점토 발림의 범위를 보면 금관총에서 김대환이 검토한 것처럼 가구시설 안쪽이 아니라, 목곽의 평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앞서 천마총 적석의 주칠이 3.4m 높이로, 외곽에서 측벽부 적석의 거의 끝부분까지 나온다는 것이다(그림 13). 이는 결국, 측벽부 적석이 만들어지고 사방적석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쌓은 것으로 특별히 공정상 구분되지 않음을 말해준다.[36]

사실 이러한 사방적석의 존재는 금관총 재조사에서 구체화 되었는데 내1진주의 조밀함과 적석 하단의 측벽적석 내면의 석렬(石列)을 근거로 사방적석이 구분된다고 본 것이다(그림 29).

하지만, 이를 사방적석으로 구분해서 보는 확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려면 이 같은 일부분의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황남대총 남분의 외 · 중곽 사이를 채운 잔자갈처럼 축조 재료를 달리하는 새로운 정황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본다.

36) 다만, 천마총에서는 가구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이러한 수평상의 동시 축조가 예외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발굴에서 천마총과 같이 주칠 냇돌의 정황이 면밀하게 조사된다면 해결되리라 본다.



[그림 29] 측벽부 적석 석렬과 내1진주열(국립중앙박물관 2016: 69, 77, 78)

또한 이에 대해서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에서 사주적석을 처음 언급한 김두철의 견해(2009: 77~79)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사실로 보았을 때, 그가 황남대총 남분을 예로 들어 언급한 사주적석은 가구시설과 외곽 사이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외 · 중곽 사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천마총을 비롯한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공정을 바탕으로 연구의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보았다. 그 주요 근거는 천마총의 주칠(朱漆) 범위와 함몰 정황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여기에 황남대총 북분의 점토 발림과 금관총 하부의 구조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여 축조공정을 복원하였고, 나아가 그간의 연구 쟁점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요약하자면,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는 모두 3곽 1관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높이도 비슷하였으며, 중곽과 선행묘제의 외곽과 연결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축조공정의 복원에서는 이러한 중곽이 외곽보다 먼저 설치되고, 사방적석과 측벽부 적석의 공정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며, 목곽 상부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쪽샘지구 고분 주변의 조사성과를 바탕으로 채토 및 구상유구의 존재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를 수정 · 복원하고 이를 비교하여 그 정형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필자는 오랜 시간 검토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논문에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자의적 해석이 적지 않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이는 당시 여건의 열악함과 온전한 상태로 발굴될 수 없는 적석목곽묘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조사 결과의 불확실성은 여러 이견(異見)을 낳았고 여기서 많은 논쟁이 유발되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조사단계에서 밝혀질 수도 있었던 이러한 논쟁이 객관적 증거 없이 소모적으로 반복된다면 자칫 불필요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그 해결책은 조사환경의 개선과 발굴 기술의 발전, 보고 방식의 변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밀한 해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라 고분 연구에 있어 개념의 정의와 범주의 설정, 계통, 기원에 관한 논의 등도 물론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발굴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는 그다음 단계의 논의는 '사상누각(沙上樓閣)'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자료의 기초적인 관찰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 이 논문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 '천마총과 동아시아 고분문화'의 발표문 「천마총으로 본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구조 재검토」를 수정 · 가필한 것이다.

투고일 2024. 4. 24 | **심사완료일** 2024. 5. 22 | **게재확정일** 2024. 6. 3

참고문헌

강봉원, 2004,「신라 적석목곽분 출현과 '기마민족 이동' 관련성의 비판적 재검토」,『한국상고사학보』46.

강승규, 2019,「창녕지역 횡구식 석곽의 축조 방법과 출현 배경」,『한국고고학보』113.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 Ⅷ -H · L지구 분포조사 보고서』.

_____, 2019,『천마총, 발굴조사의 기록』.

_____, 2021a,『황남대총 북분, 발굴조사의 기록』.

_____, 2021b,『慶州 쪽샘地區 新羅古墳遺蹟 Ⅻ -H85 · 86호, L17 · 137호-』.

_____, 2023,『경주 쪽샘 44호분 2023 발굴조사 자료집』.

국립중앙박물관, 2016,『慶州 金冠塚(遺構篇)』.

_____, 2020a,『慶州 瑞鳳塚 1』.

_____, 2020b,『慶州 瑞鳳塚 2』.

권용대, 2009,「경주식 적석목곽묘의 구조복원 재고」,『문화재』42(3).

김대환, 2016,「지상적석식 적석목곽묘의 목곽부와 적석부의 성격」,『고고학지』22.

_____, 2021,「신라 지상식 적석목곽묘의 출현과 의의」,『신라문물연구』14, 국립경주박물관.

김두철, 2009,「積石木槨墓의 構造에 대한 批判」,『古文化』73.

김용성, 2007,「新羅積石封土墳의 地上式 埋葬主體施設 檢討」,『韓國上古史學報』56.

_____, 2009,『신라왕도의 고총과 그 주변』, 학연문화사.

_____, 2015,『新羅古墳考古學의 探索』, 진인진.

김원룡, 1976,『한국 문화의 기원』, 탐구당.

_____, 1986,『韓國考古學槪說』(第三版), 一志社.

김택규 · 이은창, 1987,「제9장 결론」,『구암동 고분 발굴조사 보고』, 영남대학교박물관

남익희, 2019,「新羅土器 硏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文化財管理局, 1973,『天馬塚 略發掘調査報告書』.

_____, 1974,『天馬塚 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硏究所, 1985,『皇南大塚 北墳發掘調査報告書』.

_____, 1993,『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圖版)』.

_____, 1994,『皇南大塚 南墳發掘調査報告書(本文)』.

박형열, 2021a,「4~6세기 신라 중심고분군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21b,『古新羅 古墳群 硏究』, 학연문화사.

小泉顯夫, 1927,「慶州瑞鳳塚の發掘」,『史學雜誌』38-1.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0,『경주 노서동 104(금관총) 일원 유적』.

심현철, 2013,「신라 적석목곽묘의 구조와 축조공정」,『한국고고학보』88.

_____, 2018a,「新羅 積石木槨墓의 墳形과 封墳設計原理」,『韓國考古學報』109.

_____, 2018b,「경주분지의 고지형과 대릉원 일원 신라고분의 입지」,『문화재』51(4).

_____, 2020,「新羅 積石木槨墓의 殉葬」,『고고광장』26(26).

이성주, 1992,「蔚山 中山里遺蹟 發掘을 通하여 본 新羅墓制의 起源」,『제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 영남고고학회.

_____, 1996,「新羅式 木槨墓의 展開와 意義」,『신라고고학의 제문제 제20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문』, 韓國考古學會.

이은석, 1998,「신라 황남대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희준, 1987,「慶州 皇南洞 第109號墳의 構造 再檢討」,『三佛金元龍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Ⅰ-考古學篇』, 一志社.
_____, 1996,「慶州 月城路 가-13號 積石木槨墓의 年代와 意義」,『碩晤尹容鎭敎授停年退任紀念論叢』.
정익재, 2017,「쪽샘 H · L지구 구상유구 검토」,『慶州쪽샘地區新羅古墳遺蹟Ⅷ』.
_____, 2020,「문화재 발굴 조사 · 연구 과정의 개선 방안 연구- 신라 고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중심으로 -」,『문화재』, 53(3).
朝鮮總督府, 1924,『慶州金冠塚과 其遺寶 -本文上冊-』.
조수현, 2002,「皇南大塚과 天馬塚의 區劃築造에 대하여」,『嶺南考古學報』31.
최병현, 1992,『新羅古墳硏究』, 一志社.
_____, 2015,「신라 조기 경주지역 목곽묘의 전개와 사로국 내부의 통합과정」,『한국고고학보』95, 한국고고학회.
_____, 2016a,「신라 적석목곽분의 축조기법과 전개」,『숭실사학』37.
_____, 2016b,「신라전기 적석목곽묘의 출현과 경주 월성북고분군의 전개」,『문화재』49(3).
_____, 2016c.「신라 적석목곽분 기원 연구의 방향」,『중앙고고연구』21.
_____, 2021,『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_____, 2024,「경주지역의 신라고분 전개와 금척리고분군」,『또 다른 신라 이야기, 금척 고분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최종규, 2011,「積石塚의 封, 槨, 殉」,『考古學探究』9.
황상일 · 윤순옥, 2014,「경주지역 적석목곽분 형성에 미친 자연환경의 영향」,『한국지형학회지』21(3).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360도 vr자료 https://vrnrich.kr/view-project/152

http://doi.org/10.20292/jcich.2024.44.35

Reconsideration of the structure of above-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Jung, Ik-Jae(Researcher,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construction of above-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and reconstruct their construction process. To do this, we have examined the existing reports and proposed revisions based on what we believe to be errors.

In the excavation report, the Cheonmachong tomb was described as a 1-chamber 1-coffin structure and the north mound of Hwangnam-daechong tomb as a 2-chamber 1-coffin structure, which led some researchers to believe that the 3-chamber 1-coffin structure of the south mound of Hwangnam-daechong tomb was changed by the omission of the central chamber in the northern part of the Hwangnam-daechong tomb and the lowering of the chamber in the Cheonmachong tomb. On the other hand, later studies have begun to suggest that there may have been a central chamber in the north mound of Hwangnam-daechong and Cheonmachong. While I agree with the general framework, I have pointed out the weakness of the evidence and understanding of the specific structure, and supplemented it by examining the excavation area and the depression of the Cheonmachong red lacquer stone.

In summary, I have shown that, first, the north mound of Hwangnam Daechong tombs and the Cheonmachong are a three-chamber, one-coffin structure with a central chamber; second, the height of the Cheonmachong's neckline can be

revised from 2.1 metres to 3.4 metres based on the excavation of the red lacquer stone. Third, the reconstructed construction process shows that the central chamber was built before the outer chamber, and the outer chamber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red stone part due to the grounding of the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fourth, through the comparison, the formality of the grounded red stone mausoleum was examined, and it was found that the plane size of the central chamber was very similar. Finally, fifthly, we confirmed the similarity of the floor plan of the above-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with that of the large under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of the early Silla period, Jjoksam L17, and provided clues to it.

Key words : Ancient tombs of Silla, above-ground stone-mounded wooden chamber tombs, Hwangnam-daechong, Cheonmachong, structure